

#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기계공학 이수미

2022 년 2 학기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 파견

## 1. 출국 전 준비

기존 귀국보고서들을 보면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교와 ETH 에서 받은 메일 그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가져가면 좋을 것들도 블로그들을 참고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일 추천해 드리는 것은 한국 식재료와 생활용품들입니다. 아시안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수입품이다 보니 가격이 착하지 않습니다. 각종 소스와 1인 밥솥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하며 남은 자리는 라면으로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생활용품도 스위스에서 사면 비싸서 다이소에서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을 사 오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눈썰 칼, 학용품, 등등 자리가 남는다면 사 오는 걸 추천합니다.

## 2. 현지 생활

### - 교통

스위스 기차는 sbb 이고 취리히 교통은 zvv 입니다. 제 기숙사는 학교랑 거리가 가까워서 monthly pass 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교환학생은 교통편을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Half fare card 를 구매합니다. 일년 단위 밖에 구매할 수밖에 없지만 스위스 내에 여행을 많이 다니실 거면 추천합니다.

Seven25 이라는 카드는 월 단위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위스 내 교통을 추가 금액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카드를 사용하여 당일치기 여행을 많이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새벽 1~5시 기차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chool trip 입니다. 10명 이상을 모으면 (8명당 2명의 25세 이상 가능) 하루 동안 인당 15프랑으로 스위스 내 전체 교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체르마트, 베른, 바젤, 등을 여행했습니다. 티켓은 그룹 리더 한명이 소지하므로 그룹이 다 같이 다녀야 합니다. 체르마트는 기차표가 매우 비싸므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 - 기숙사

저는 기숙사 요청란에 1 순위로 Culmannstrasse 26 을 신청했고 배정받았으며 매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 기숙사는 4+층까지 있으며 오르막길 때문에 +층도 있습니다 (예: 1, 1+, 2,

2+, ...). 60 명이서 주방 하나를 사용하고 매일 청소 당번이 있습니다. 층마다 냉장고가 있고 방마다 배정되는 칸이 있는데 좁습니다. 제가 쓴 냉장고는 냉동실이 방마다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넣을 공간이 부족해서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고기나 음식을 많이 얼리실 예정이라면 개인 냉장고를 추천합니다.

Culmannstrasse 26 기숙사 월세는 500~600 프랑 정도였고 제 방은 컷습니다. 어떤 방은 작지만 월세는 덜 내는 식이었습니다. 기숙사 요청할 때 조건을 적으시면 최대한 반영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많이 삐걱거려서 층간 소음은 조금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가 오래돼서 엘리베이터, 싱크대, 등등이 고장 났는데 고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국 일 처리 속도를 예상하면 힘들 겁니다. 세탁기 두 개 건조기 두 개가 있는데 60 명이 같이 써서 빈 시간대를 잘 탐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60 명이 주방 하나 common room 하나를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사람들도 좋았습니다. 같이 요리하고 밥 먹으면서 친해지는 것을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신기했습니다. 불편한 점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이 기숙사를 추천합니다.

#### - ESN

ESN 은 교환학생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활동이 있으며 ESN 카드(10 프랑)를 소지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SN 에서도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ESN 활동을 추천합니다. 와인 테이스팅, 기차 여행 등, 스위스를 알아갈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서 재밌습니다.

#### - ASVZ

학생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플로 운동을 예약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강좌는 예약 시간이 되자마자 다 차버리니 사전에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운동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시도해볼 기회가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건강하세요.

#### - Ricardo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인데 배팅으로 낙찰받는 시스템입니다. 냉장고나 스키기어 같이 짧게 쓰고 한국으로 가져가지 않을 물건들을 살 때 쓰면 유용합니다.

#### - Snow25

스키나 보드를 지역에 따라 25/35/45 프랑으로 교통권과 스키패스를 통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스키패스는 오후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가 지고 나서는 한국처럼 슬로프에 불이 켜지 않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짧습니다.

## - 마트

Coop, migros, lidl, aldi, denner, 등이 있습니다. Coop 이 가장 비싸고 migros 는 비슷하지만 m-budget 제품들이 싸고 좋습니다 (M-budget 간식 추천합니다). Lidl 이랑 aldi 는 더 저렴하며 aldi 에서 피자 3 판을 4 프랑에 팔아서 자주 먹었습니다. Denner 는 주류가 다양하고 저렴한 것 같습니다. 고기가 많이 비쌉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독일

비싼 고기 독일에서 사면 저렴합니다. 적어도 2~30%는 저렴합니다. 보통 Konstanz 나 Waldshut 를 seven25 을 써서 갑니다. 그러나 마트 운영시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7 시에 기차 탑승해서 도착 후 장을 보고 돌아오면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고기를 사서 냉동시키면 매주 장 보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득인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 보험

저는 가장 저렴한 Swisscare 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선택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기 중에 열이 39.4 도까지 오르고 보험이 있어도 돈을 냈어야 했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가지 않고 타이레놀과 겨울 공기로 열을 내렸습니다. 보험 중 첫 응급실 방문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료인 보험이 있으니 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보험을 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 3. 수업

German intensive course: 개강 2 주 전에 독일어를 intensive 하게 배우는 강의입니다. 수강료 값어치를 합니다. 이 강의에서 스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회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자주 여행했습니다. 독일어 수업이 필수는 아니며 개강 전에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스킵하시고 학기 중에 독일어를 들으시거나 아예 안 들으셔도 됩니다. 스위스에서 영어로 대부분 소통이 가능합니다. 독일어 배우고 싶거나 친구 사귀고 싶으시면 추천해 드립니다.

졸업요건을 거의 다 채우고 교환을 갔기 때문에 주전공 수업 하나, 부전공 수업 하나, 그리고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두 강의를 들었습니다. Research project 도 학기 중에 했습니다.

Research project 는 사전에 supervisor 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ETH 는 출석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강의들은 제한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의를 신청하고 시험도 신청해야 비로소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싶으시다면 매우 추천합니다. 석사 강의들이 대부분 영어로 진행돼서 석사 강의를 수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들은 어렵고 연구도 쉽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다닌 대학에서 공부하면 이 정도는 각오하고 오셔야 합니다. 어려운 만큼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ETH 는 이론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이론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기회가 된다면 추천합니다.

#### 4. 소감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말 걸면서 서로를 알아가면 저랑 맞는 사람들을 찾을 기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5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가 갑자기 사교적으로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노력하고자 합니다.

스위스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많이 아끼고 독립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식이 너무 비싸고 학식도 거의 기본 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 대부분이 스스로 요리해 먹는데 저는 요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반성하고 배웠습니다. 노는 것도 노래방, 카페, 혹은 쇼핑이 아닌 운동 같이하기, 스키 타기, 같이 음식 만들기, 보드게임, 등등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속세와 떠난 느낌이어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번 교환을 통해 다양한 길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고 세계적인 대학에서 공부해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볼 기회를 주신 공대 국제협력실에 감사드립니다.